

기고

극우의 미래, 우파가 하기 나름이다

김 흥 종

객원선임연구위원

2025-12-15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시화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오늘의 국내외 정치가 90여 년 전 유럽의 풍경과 어쩌면 이렇게도 닮아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다. 여기서 우파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파가 극우를 잘못 판단하면 극우는 우파가 열어준 문틈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고, 들어온 뒤에는 체제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우파가 그냥 무지하거나, 나태하거나, 극우의 위험성을 어렵잖이 알고도 “설마” 하면서 스스로를 속인다는 점이다. 우파는 왜 극우에 쉽게 무너지는가. 90여 년 전 유럽으로 가보자.

독일 보수 엘리트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

1930년대 초 독일의 보수 세력은 히틀러가 비정상적인 급진주의자이지만 통제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불신했고, 그의 거칠고 선동적인 언행과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총리 기용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힌덴부르크의 혐오감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히틀러의 대중적 영향력을 무시했고, 나치당을 체제 내부로 끌어들여 통제하면 독일 정치의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보수 엘리트들도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느라 결과적으로 히틀러에게 권력을 헌납했다. 히틀러가 1933년 1월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기 전, 총리를 지냈던 세 명의 우파 정치인을 보자. 바이마르공화국 제21대 총리인 하인리히 브뤼닝은 대공황기 긴축재정을 밀어붙이며 대중의 불만을 키웠는데, 그의 정책적 실패는 나치당이 급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다 히틀러의 집권을 도와준 제22대 총리 프란츠 폰 파펜은 좌파를 약화하기 위해 히틀러와 과도적 동맹이 필요하다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했다. 제23대 총리로서 히틀러의 바로 전임 총리였고 1934년에 결국 살해당한 쿠르트 폰 슈라이허는 군부를 통해 히틀러를 견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보수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히틀러를 자신의 협상 카드로만 여겼는데, 히틀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히틀러는 연이어 선거에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며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갔고, 힌덴부르크 측근들은 결국 히틀러에게 총리직을 주어 책임을 짊어지게 하면 쫓아낼 구실도 마련할 수 있다는 위험한 계산을 받아들였다. 이는 우파가 극우를 일시적인 통치 파트너로 착각한 결과였다.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된 순간 이미 독일 민주주의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나치는 정권을 잡자마자 파트너이던 보수 세력을 가장 먼저 불법화하고 해체했으며 선거제도와 사법부, 언론 자유를 순식간에 파괴했다. 그리고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다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선거를 실시하고 승리해 가짜 정당성을 확보했다. 독일 우파는 선을 가볍게 뛰어넘어 탈법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극우와의 타협이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그 무게를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독일과는 달라야’... 프랑스 우파의 경쟁심

프랑스는 극우의 원조 격인 나라도. 19세기 점차 극우화된 보나파르트 왕당파에 영향받은 프랑스 사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나라 전체를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 과정에서 급성장한 극우 세력으로 인해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는 사상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1934년 2월 파시스트들은 국회를 공격하려 하고 파리 한복판에서 준군사조직의 폭력시위를 일으키는 등 프랑스 제3공화국은 쿠데타 위기에 직면했다. 프랑스 극우연합(Les Ligues d'extrême droite)은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빠르게 폭력의 조직화를 이뤘고, 거리시위에 군중을 동원하는 능력도 상당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극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프랑스 우파가 성찰적이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독일과의 경쟁심, 그리고 히틀러였다. 프랑스 우파는 극우가 체제를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불과 1년여 전 먼저 극우로 넘어간 독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혁명의 전통에 따라 공화국의 명맥을 잇는다는 미명 아래 우파는 극우와의 협력을 선택하지 않았고, 군부와 고위 관료층 또한 극우 단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극우와 손잡는 순간 우파가 통째로 파괴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공포가 지배했다. 이 방어적 보수주의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했고,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드물게 극우의 집권을 막아낸 나라가 되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오즈월드 모즐리가 이끄는 영국파시스트연합(BUF·British Union of Fascists)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을 그대로 모방한 검은 셔츠를 입은 추종자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대중적 공포를 조성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탈리아나 독일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극우는 결국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제도권 우파가 그들을 배제했다. 1932년 창당해 한때 당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렀던 이 파시스트 정당은 1940년 5월 반유대주의를 주요 의제로 내걸고 유대인에 대한 도발적인 위협과 괴롭힘을 심화했다. 이후 전시방위 규정에 따라 '적군 동조자'로서 모즐리는 체포됐고, 영국파시스트연합은 불법단체로 해산됐다.

보수당 내부 고립 마다하지 않은 처칠의 경고

1930년대 영국이 파시즘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흔히 알려졌지만 실제 풍경은 훨씬 복잡했다. 의회와 언론의 주류는 영국파시스트연합을 영국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 집단으로 봤고, 많은 보수 정치인은 파시즘이 자신들의 정통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영국 사회에는 파시즘 관용이라 부를 만한 분위기도 존재했다. 강제력이 약한 국가, 비교적 개방적인 정치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체제 경쟁을 믿었던 다수의 순진한 보수 엘리트는 조금 위험한 사상이라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낭만적 태도를 취했다. 몇몇 보수 의원은 파시스트 집회 금지에 반대했고, 당시 내무부 일부 인사도 영국파시스트연합을 과민하게 취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영국 우파는 극우를 무조건적 악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끌어안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전략은 거리두기와 제한적 관용 사이의 회색지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극우를 보수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일만은 금지했다는 점이다. 보수당은 영국파시스트연합 지도부와 공식 연대를 고려한 적이 없었고, 정당 차원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중심에 두고 고려하지 않았다. 파시즘의 선동성과 폭력성, 그리고 반의회주의가 '보수적 품격'(conservative respectability)이라는 오랜 규범과 충돌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긴장된 균형 속에서 더욱 도드라진 인물이 우파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었다. 그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전체주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경고했고,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를 일시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그는 보수당 내부에서도 고립됐다. 불필요한 전쟁 공포를 조장한다는 조롱을 들었고, 히틀러와의 타협을 모색하던 네빌 체임벌린 정부와도 충돌했다. 그럼에도 처칠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정과 제도적 규범이지, 극단적 민족주의나 독재 리더십이 아니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보수주의 자체가 붕괴한다고 그는 보았다. 역설적으로 당시 지도부는 처칠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경계하는 대상과의 결정적 결탁만큼은 피했다. 영국 우파가 영국파시스트연합과 선긋기를 유지한 것은 도덕적 고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극우와 손잡는 순간 자신들이 지탱해온 체제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정치적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는 불완전한 관용과 제도 보전 의지라는 두 축이 교차하는 가운데 극우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 처칠의 고독한 경고는 당시엔 과도한 경계심으로 여겨졌지만, 파시즘이 유럽을 집어삼킨 이후 시대를 가장 정확히 읽은 판단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파가 극우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된다.

우파가 우파다워야 극우 막을 수 있어

극우의 위험은 극우 자체에도 있지만, 극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파의 안일함에서 비롯된다. 독일 보수는 극우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판단은 자신을 포함한 국가의 붕괴로 이어졌다. 프랑스 보수는 극우의 조직폭력성을 독일 사례를

보면서 확인했고, 독일과의 경쟁심이 체제를 겨우 지켜냈다. 영국 보수는 정치적 관용이라는 '낭만적 순진성'을 극복하고 극우가 보수의 본령을 파괴함을 직감했다. 그 경계심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방패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의 신념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파가 극우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우파가 공동체의 제도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극우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우파는 성찰하고 쇄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과 지성에 대한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본 글은 12월 8일자 한겨례21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